

<지난주 말씀>

▶지난주 말씀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맹세는 제일 높으신 분이 하신 맹세입니다. 이 분의 맹세는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맹세입니다. 이 맹세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이번주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첫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내사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분이 영혼의 달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으로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자가 되셨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붙잡고 그 분 안에 들어가고 그 분과 함께하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렘 왕으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부모가 없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문제도 유일한 문제고 해답도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론>

1.지금

▶맹세로 되어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입니다. 어떤 중보자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중보자의 비밀입니다. 첫 언약이 무효였다면 이 중보자가 필요없습니다. 아담이 첫 언약을 깨지 않고 살았다면 중보자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오신 이유는 첫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8:1)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가 필요없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지만,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히8:2)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장막,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히8:3)

사람의 몸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아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히8:4)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니까?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육신의 몸만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히8:5)

유대인들이 붙잡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다가 그 실체가 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바보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히8:5하-6)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이 직분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분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본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 진실, 사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히8:7)

율법이 흠이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언약의 중보자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둘째 언약입니다. 흠이 없는 언약의 중보자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잘못을 지적하는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히8:8)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고 진실도 봐야 하지만 영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히8:9)

새 언약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자기 백성을 지켰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보자의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다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음에도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도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8:10)

예수님이 새로 맺은 언약은 자기의 법을 자기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각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바뀔수록 근본 치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8:11-12)

율법 속에 있는 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 속에 있으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가 사함을 받으면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낱아지게 하신 것이니 낱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8:13)

율법은 낱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 예수는 합당한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섬기는 것은 옛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인 예수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